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시리즈 7.

“골짜기의 영성”

(고린도후서 12:7-10)

1. 고난과 시련,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골짜기

한 목장에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맹수들을 다 잡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들이 안전하게 번식하는 듯했으나, 겨울이 오자 양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생태학자들의 연구 결과, 늑대나 여우 같은 맹수가 사라지자 양들의 긴장이 풀리고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고난과 시련이 더 강한 존재를 만든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역사적 위인들과 성경의 인물들 역시 예외 없이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카뮈(가난과 폐결핵), 에디슨과 베토벤(청각 장애), 도스토옙스키(간질병), 조용기 목사(폐결핵 말기) 등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시련 속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꽃피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조지 마티슨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자리를 묻는다면 한결같이 '내가 옆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구덩이와 감옥에 던져진 요셉,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적 거장들은 모두 칠흑 같은 악함의 골짜기를 거쳐 축복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2.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두 가지 영적 은혜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내리막 골짜기에서 마귀 아볼루온을 만나 큰 상처를 입으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낸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평생을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치명적인 안질이나 간질병 같은 핸디캡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통이 떠나가도록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 육체적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시련의 골짜기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약점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천국)을 경험하고, 그가 쓰던 물건만 달아도 병이 낫는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로 그를 치셨습니다. 뽕을 자랑하다 그 뽕이 나무에 걸려 사자에게 잡혀 먹힌 사슴이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은 압살롬의 예처럼, 사람을 진정으로 패망하게 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교만을 부르는 ‘장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약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경주마의 입에 물린 재갈처럼 우리를 제어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십니다. 거친 파도에 시달린 바위가 둥글둥글해지듯,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 약함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시를 없애 달라는 간구에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뜻대로 다 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F.B. 마이어의 말처럼, 인간은 스스로 너무 강하고 자신의 책략이 많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적합할 때가 많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 구조하는 구조대원처럼, 하나님도 우리 내면의 힘과 교만이 빠지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곳이 아닌 말구유, 나사렛 동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내 힘을 빼고 인생의 빈 배가 될 때 주님이 오르십니다. 약함의 골짜기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게 하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3. 삶의 짐이 주는 축복과 신앙인의 태도

정호승 시인은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이라는 시에서, 삶의 무거운 짐 덕분에 불의와 안일함에 휩쓸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며 남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직장 and 가족의 짐, 가난과 질병의 짐, 그리고 영혼과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짐’은 당장에는 무겁고 내려놓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 우리가 짊어진 사명과 봉사의 짐은 우리를 세상의 풍파에서 지켜주고 주님께 더 찰싹 붙어있게 만드는 귀한 축복이자 안전장치입니다.

인생의 시련은 배를 흔드는 거센 바람과 같지만, 동시에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똑같은 탄소(C)가 주어져도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숯덩이가 되기도 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와 고난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저주가 될 수도,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점을 약으로 삼아 강점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